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73 회

제 3 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한밭도서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2면
나. 한밭도서관 소관..... 2면
다. 소방본부 소관..... 2면
· 계수조정 및 의결..... 37면
-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38면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한밭도서관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한 후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 문화체육국 소관
- 나. 소방본부 소관
- 다. 한밭도서관 소관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한밭도서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한밭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에 앞서 늘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현재 16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4개소를 착공해서 연말에 3개소, 내년에 1개소 해서 내년까지는 20개소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만을 가지고 도서관 수요인력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단위에서, 생활주변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에 보면 96개소였던 작은도서관을 금년도 말까지는 14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말까지는 125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주변에서 부모와 어린이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같이 책도 읽고 생활정보도 교류하는 이런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기존에 알짬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이 있지요?

그것은 무슨 공공기금에서 하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은도서관에는 옛날 새마을문고로 시작해서 했던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3,000만원씩 지원받아서 하는 알짬, 짜장, 또바기 이런 도서관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중 4월에 3개소가 개소됐고 6월에 1개소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고, 이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이 없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 구에서 공모를 받아서 매년 2개소씩 확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새마을문고는 물론 공조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서관하고 이것은 시에서 구에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이고 세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문고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르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하면 되지 왜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를 도입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로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문고라든지 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 사업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수요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중복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이용도가 높고 또 저희들은 시설할 때만.

○郭泳敎 委員 기존에 했었던 것 아니지요?

신규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신규입니다.

시설하는 곳에만 3,000만원 초기연도에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의 리모델링과 컴퓨터라든지 기초적인 자료구입을 하도록 그것만 지원해주면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데 실제 관리감독은 각 구청에서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관리운영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운영의 평가를 통해서 도서구입비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지원지도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郭泳敎 委員 구에서 기왕에 새마을문고라든지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자생단체들이 있어서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소 부족하다는 측면인데, 이런 데를 지원해서 일원화해서 가준다면 될 텐데 굳이 또 다른 형태의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나?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요에 충분히 수요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데에는 일정 재원의 한계 때문에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인 지역이라든지 자체 운영능력이 있는 이런 도서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주고 초기연도 3,000만원 지원해주면 그 이후에 지원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이건 많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개 중복된 주체들이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도, 지원 이런 부분들은 구와 시에서 일원화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이번에 시장께서 자치구 순방하면서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공약하고 했는데 지금 유성문화원 시설비로 6,500만원이 되어 있고, 중구문화원도 리모델링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각 자치구 문화원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 말고 다른 데가 있습니까?

특히 서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의 사업은 구 고유사업입니다.

다만 시설을 할 경우에 신규시설한다든지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국비 3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비 35%, 구비 35%, 국비 30% 이렇게 재원부담을 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현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문화원이 있고 서구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구에 지원하는 것은 중구문화원 자리가 옛날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문화원으로 출발해서 아주 시설이 노후되고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대전고등학교 앞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비지원에 따라

서 시비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서구의 진행상황은 일단 서구에서 문화원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비율에 따른 국비,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94쪽에 한밭수목원대축제,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1회성입니까, 아니면 연례로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한밭수목원대축제사업은 한밭수목원이 가시화되고 시민들이 정서함양이라든지 교육의 장으로, 체험의 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남문광장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일대의 문화벨트와 연계되는 선상에서 한밭수목원과 남문광장 일대를 거쳐서 한밭수목원대축제라는 사업을 민간 주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밭수목원과 관련된 음악회라든지 학생문예경진대회라든지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종합적인 축제형태의 행사를 금년부터 시행해서 연례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연례사업으로 하겠다, 매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이것은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자부담 3,500만원인데 보조금 5,000만원이고, 시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 사업규모는 1억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郭泳敎 委員 이 자료에는 8,500만원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5,000만원이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8,500만원부터 처음에는 1억 3,000만원까지 자체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좀더 내실있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능력을 추가로 협의하고 있는데 50 대 50 정도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郭泳敎 委員 축제가 한밭수목원에서 축제를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축제들이 많은데 구태여 새로운 축제 하나를 만들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로 계상목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 전시성, 홍보성 행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풍물한마당경연대회, 시민문화예술축전, 여기에 또 H₂O 축제지요 이른바?

여기에도 2억원이 추가로 이번에 계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축제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금년부터는 정리해서 계절별 축제로 집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봄에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연계축제를 봄에 하고, 여름에는 H₂O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인력선축제라든지 연계축제를 같이 묶고, 가을에는 열기구축제를 중심으로 한 한발축제가 검토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시민들이 연계선상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집약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의 경우에도 그동안 장르별로 분산해서 되던 부분들은 5월에는 연극, 6월에는 무용, 9월에는 국악, 11월에는 합창 그렇게 축전형태로 집약해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을 시키고 특히 시민들이 한 가지 축제에 와서 그냥 한 가지 프로그램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물한마당경연대회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전시에 현재 풍물단이 120개 단체에 풍물단원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IAC총회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고 시제60년 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음악인 풍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맘모스로 무슨 행사를 해서 전국체전이나 IAC총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전통 고유의 풍물을 보여줄 수 있는 정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시연적인 성격과 또 전체적으로 내년에 맘모스의 풍물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풍물경연대회를 시도하고 이 사업은 연례행사로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한발문화제 때 풍물한마당이라는 그 소규모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한발문화제가 H₂O 페스티벌로 개선이 되면서 그때 수요됐던 선비문화적인 축제 같은 것은 우암과 동춘당으로 그리고 풍물한마당은 별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예술축전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郭泳教 委員 그래요, 간단하게.

추가로 2억원을 늘린 배경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H₂O 페스티벌은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남문광장과 갑천 주변 일대에서 금년도에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워터존, 워터 사이언스 존, 워터 아트 존, 워터 스포츠 존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기본계획에는 9억원 정도는 가져야 당해연도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획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줄이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그때는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5억원을 요청을 드려서 성립이 됐고 추가로 최소한 2억원 정도는 포함이 돼야 전체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에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H₂O 페스티벌은 초기 연도고 또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하는 참여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H₂O 축제가 이른바 어떻게 보면 대전의 대표축제의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2억원도 처음에 당초 7억원 예산을 작년도에 아마 2억원을 삭감해서 의회에 된 거 아닌가 기억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습니다, H₂O 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한밭축제가 지금 개최되지 않으면서 대안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이것이 불분명한데 국장 답변은 연례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밭문화제의 개선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 20여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8일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계절별 축제형태로 묶으면서 여름축제로 대전을 대표하는 대표축제 형태로 가게됩니다.

특히 H₂O 페스티벌 기간에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축제들이 충대의 인력선 축제 또 보트레이스라든지 인력선 체험, RC보트 관람, 이런 행사와 연계를 시키고 또 카이스트의 Ubi play 이것은 물과 관련된 카이스트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郭泳敎 委員 알겠는데 지난번에 다 들은 얘기인데 H₂O 축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H₂O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대전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을 좀더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대전시의 축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더 고민한 다음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졸속적으로 그때 그때 1회성 식으로 해서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전원이 다 100%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대전이 물축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대전의 대표성을 떨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전을 대표하는 개념이 H₂O가 아닙니다.

3대 하천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대전의 3대 하천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대전이 수량이 풍부한 수상의 도시가 아니고 H₂O와 대전과, 물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郭泳敎 委員 억지로 갖다 붙이면 붙일 수가 있지요.

3대 하천이다 뭐 과학이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여 차례의 토론과 공청회 과정 거치면서 그런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제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을 해나가고 모든 축제가 첫해에 모든 것이…….

○郭泳敎 委員 이것을 반영하고 보완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기왕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으니 해보고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금년에 성과를 가지고…….

○郭泳敎 委員 이것을 연례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별도로 또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물론 금년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여부라든지,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1년 반에 걸쳐서 시민토론회, 공청회, 각계 의견수렴, 이런 과정에서 일단 출발한다는 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위원 질의하고…….

○委員長 吳榮世 거기 H₂O 축제에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H₂O 축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갑천첨단과학벨트, 지금 현재 90억원이 예산이 서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80억원 서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80억원 서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이 작업을 가능하면 H₂O 축제하고 병행해서 또 실시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여기 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한 100억이라는 돈을 기왕에 갑천에서 위주로 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관광벨트 조성에 설계할 때부터 맞춰서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연례행사로 하는 하기가 어려워요, 지정된 날짜로도 할 수 없고.

또 지금 현재 구상되어 있는 것은 물총이라든지 물대포라든지 물벼락이라든지 이렇게 한시성 있는 여름 8월달 중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전국에서 몇 만명이 우리 대전을 찾는데 기왕이면 전국체전하고 물축제하고 갑천관광벨트하고 연계해서 잘 조성해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신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엑스포다리와 갑천 그리고 포장마차 일대 남문광장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하는 내용도 다행히 저희들이 문화체육국에서 H₂O 페스티벌이라든지 그 사업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행사라든지 전국 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 H₂O 페스티벌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그 계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정말 대전을 찾는 계기행사라든지 큰 규모의 행사 때 이것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민간경상보조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과 포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H₂O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별도로 설명회도 들었고 많은 대화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자체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방금 광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과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갑천관광벨트와 연결해서 축제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모색돼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그동안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했던 것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남문광장에서 공간구조의 개편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H₂O 축제의 장소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또 장소의 문제라든지 과학공원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구성한 다음에 예산을 늘려서 또 대전에서 아름다운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천문화관광벨트가 140억원 규모 사업계획을 했다가 재창조 계획 또 청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엑스포구역 부분은 제외하고 하면서 90억원 규모로 해서 수목원이라든지 엑스포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다리를 만드는 이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H₂O 페스티벌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물과 관련된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자원은 물이 큰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 기획을 할 때 또 대전같이 대전권을 흐르는 3대 하천같이 보고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다, 그리고 대청댐과 관련된 수자원 이런 부분과 또 물과 관련된 과학프로그램들이 물을 소재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과 문화예술을 함께 하고 또 대전의 보고인 3대 하천 이런 연계선상에서 H₂O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따라서 지금 인삼축제라든지 보령머드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 시·군·구 단위 축제도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趙信衡 委員 지금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그것은 압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실·국에도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실·국별로 다른 축제나 어떤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공원에서의 어떤 연계방안 또 감천프로젝트 연계방안 또 남문광장의 구조적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한 다음에 더 대전다운 축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지 지금 당장 너 얼마가 들어가서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키워나가야지…….

○趙信衡 委員 지금 장소성의 문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행사한 다음에 나중에 변화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남문광장을 한밭수목원이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축으로 연결해야 된다, 결국은 그쪽이 녹지광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축제의 장소에서도 약간 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지요.

또 과학공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계획이 되면 축제의 장소가 과학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간을 가진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금년에는 한빛광장의 음악분수와 함께 해서 물과 불, 화염과 조명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다만 장소와 여건에 따라 또 그 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프로그램들은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야 합니다.

금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면 시민들이 벌써 식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소의 여건, 이 부분들은 앞으로 금년도에 한 프로그램을 계속 간다고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뜻은 잘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한번 해본 다음에 늘려 가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물축제에 대해서 사실은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H₂O 축제라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일 것이다 또 대전의 이미지에 맞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난번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5억원 정도면 한번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5억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막상 계획하고 보니 부족한 것 같지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앞으로 변화될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조신형 위원님과 광영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이라든지 앞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두 위원 얘기한 H₂O 페스티벌은 대전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이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밭문화제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주무국에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해서 아까 꼭 위원께서도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즉 봐도 축제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동아리 한마당 축제가 올라왔고 한밭수목원 대축제, 풍물한마당경연대회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축제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축제는 아닙니다만 내년에, 그러니까 전국체전이나 또 세계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너무나 산발적으로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이 돼서 계획되고 또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나름대로 축제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계절별로도 묶는 작업을 하고 또 기존 계절별 대표축제의 연계 프로그램들을 각 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묶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산발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는 부분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성격의 행사의 목적과 시민참여도, 앞으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기획을 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봐도 8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대전이 마치 축제의 장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축제가 계속 열리고 계획이 올라오고 있어요.

단지 문화체육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이런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도 축제는 아니지만 이런 내년을 위한

2060이라든가 이런 것을 겨냥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산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한 군데서 뭔가 통합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마치 무슨 2060, 내년을 겨냥해서 너무 많은 것을 벌여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식일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술별 장르가 각기 다르고 또 수요자와 혜택을 누리는 계층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기타페스티벌이라든지 한 풍물한마당경연대회, 풍물단을 다시 육성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풍물이 IAC총회라든지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고유의 각자의 목적과 기대하는 가치, 효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별로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그런 목적과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하여튼 선택과 집중이라고는 하셨지만 좀더 치밀하게 우리가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에 보면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획변경에 따라서 증감 없이 계수조정만 해서 세목변경 돼서 올라온 사항이네요.

그런데 이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많이 됐고 굉장히 많이 변경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것이 계획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또 변경돼야 될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과 관련해서 장소 변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웃다리농악은 최초에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동춘당 그 뒤쪽에 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변여건 이런 부분이 잘 합치가 안 되고 또 수요자인 웃다리농악 측과 협의한 끝에 엑스포과학공원의 놀이마당을 리모델링해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창조 계획 그리고 또 로봇랜드 위치 또 청산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그 쪽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예산은 기왕에 성립됐던 부분들이고 또 국비와 연계된 선상에서 다른 대안의 장소를 웃다리농악 측과 여러 군데 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시설관리공단 그쪽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연벽처리해서 짓게 되면 밖의 야외공간 활용도라든지 또 주변의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전부 해소가 되고 또 웃다리농악 측에서도 그 장소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해주시면 다시는 변경될 요인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항상 얘기할 적에는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적에 국장님께서 그것은 확실하게 이번에는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이 과연 이번에는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위에 하수처리장인가요 그쪽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도 그 옆에 아마 아파트가 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적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쪽은 하천 천변으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가 설 지역이 그 지역은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니요, 본 위원이 엑스포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아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빈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선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도 예측이 돼서 실지로 그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 보고 여기다 해야지 이번에 또 예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돼서 다시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여기 대상이 이분들이 웃다리농악은 대전을 대표하는 사실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소수의 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상처를 주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의 예측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나서 접근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나름대로는 관련부서 의견 다 듣고 환경부서라든지 의견 다 들어서 가능성 여부 다 타진하고 시설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변경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책임질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틀림없이 거기다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는 정말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이 조성이 잘 되도록 검토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26쪽에 보니까 이응노미술관 3차 기증작 운송료가 계상이 되었네요, 1,000만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3차 협약서에는 3월달까지 작품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지금 5월 말인데 이 부분 예산편성된 과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 기증작품 300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달에 미술관장이 파리에 가서 작품목록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선지에 있는 작품이 있을 수 있고 도자기라든지 물건 이런 데에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협약할 때는 대표작 300점으로 협약이 됐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별도의 운송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3월 말까지 작품을 들여오기로 협약을 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품을 들여와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해 보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그 많은 작품을 선별하고 작업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예산 성립해 주시면 전체 작품이 기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협약서에 우리가 협약한 200점 정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들어와 있는 작품이 206점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까지.

○李貞姬 委員 현재 있는 거지요, 총?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총 206점이 기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로 300점을 받겠다는.

○李貞姬 委員 300점을 받을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주무국장님께서서는 의회에 약간 전체를 다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李貞姬 委員 지금 3월달에 약속해 놓고 작품이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작품 분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후에 발생해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금 정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파리의 박인경 여사가 작품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이응노미술관의 작품 분실의 건하고 맞물려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일부 조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어디 언론보도 이런 데에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측에서 분실 건에 대해서 유족한테 이 부분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작품을 우리가 보내도 그 작품이 도난당할 정도의 그런 작품을 보관할 정도라면 그것은 곤란하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크레임을 걸어서 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내용을 보면 도난이 됐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품을 관리하는 데서 소홀히 다루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작품을 보내면 작품 관리운영 이런 체계들이 반듯하게 정립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유족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일이 있는 이후에 이응노미술관, 시립미술관 전체적인 작품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감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들이 마련이 됐고 예산과 관련해서 수반이 된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예산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관리체계가 이번에 반드시 정립이 되고 또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문화 전시를 통한, 문화 미술을 통한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를 통해 이번에 그러한 일이 발생된 주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정말로 명품미술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 그리고 모든 작품관리 체계까지 재스크린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미술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오늘도 낮고 어저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위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게 감사를 했고 그 결과도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언론을 봤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무엇인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품분실의 문제와 거기에 따라서 내부분건이 유출된다든지 현재 발생한 작품 3차의 기증이 불이행되는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감사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정이 나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총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국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이번 감사관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들이 과장된 부분도 상당수 있고 자기입장에서 자기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와전된 부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사항을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인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가라든지 변호사들, 대학교수들,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위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고 그것과 별개로 주무국장 입장에서 보면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내부의 인화단결 그리고 작품관리체계의 재정비, 재정립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의 보강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부직원들의 작품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보강하고 있고 또 새롭게 관련규정이라든지 관련법규를 연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원과 관련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예산에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장고 관리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응노 작품이 시립미술관 쪽의 수장고에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인가요, 언젠가 물어봤을 때 이응노미술관의 수장고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발생한 것은 현재까지는 이응노미술관 수장고가 운영이 안 되고 시립미술관 수장고에서 모든 작품이 그쪽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당초에 왔던 작품들이 시립미술관 수장고에서 관리됐던 작품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응노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부분은 수장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장고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양 수장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같이 이쪽도 이응노미술관의 수장고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감사결과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문제를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내용이 나오겠지만 조직구조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장고 작품관리가 만약에 잘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에 금년 미술관 개관 10주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명품미술관으로 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작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의 내실화 이런 것이 사실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여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이런 것이 뼈아픈 교훈이 돼서 미술관이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미에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삼아서 정말 다시 태어나는 미술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러나 시립미술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어도 과연 실효성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용노미술관이 개관이라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러면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을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결국 문제가 불거져서 외부기관이 감사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업소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임시봉합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시립미술관에 막대한 예산을 썼을 때 과연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입니까, 주무국장으로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점 공감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담당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분실사건이라는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술관의 본연의 기능이라든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조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든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체계라든지 직원들의 보수교육,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누수없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부의 갈등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데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본청에서도 언론을 보고 감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 주무국장은 그래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인가 사전에 이런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결국 언론과 감사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이것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아야지요.

지금과 같은 체제로 조직이 안정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래야만 시립미술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편성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와 정신으로, 어떤 자세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시립미술관장 책임하에 관리과가 있고 학예실이 있

고 이응노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응노미술관을 둘 때 관리인력이 별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따라서 관리인력은 시립미술관의 인력으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예기능만 이응노미술관에서는 보면 다소 조직이 다른 조직과는 상이한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어떤 자세로, 어떤 열정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체계와 운영상 이런 부분들을 모든 측면에서 개선검토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번에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직도 보완할 부분은 심도있게 해서 검토하고.

○吳丁燮 委員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다만 조직상의 문제가 더 크냐,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냐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직원들의 도덕성 문제 이런 내부의 문제를 외부기관에 알리거나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는 자세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도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吳丁燮 委員 지휘체계를 통해서 확립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시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보충질의 한 가지만 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작품에 대한 협약체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작품이 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박인경 여사가 이응노미술관의 명예관장으로 되어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이 여기 기존작에 대한 운송료도 추경예산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3차 작품이 빠른 시일내에 올 수 있도록,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무국

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염려해주시는 박인경 여사님과 수시로 의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인경 여사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300점에 대해서 당신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전시로 줄 작품을 이런 체계가 정리되고 시기를, 운송비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보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 작품이 빠른 시간내에 대전 이응노미술관으로 기증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책임지고 하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케이터링인가요?

케이터링서비스 최근에 아마 공모로 해서 업자가 선정된 것 같은데 선정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부실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예산과는 크게 무관한 것이지만 컨벤션이 대전시의 문화관광사업의 핵심으로 되고 있는 마당에 시작부터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컨벤션을 발전시키는데, 특히 컨벤션산업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케이터링과 관련해서 서비스라든지

음식의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설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초기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고 대전의 회의산업 육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문제라든지 음식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주방인력을 당초보다 2명 서빙인력 2명 해서 4명을 보강했고 현재 관련인원을 3명 정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컨벤션뷰로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보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모니터링도 실시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빠른 시간내에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앞으로 우리가 국제회의도 많아지고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음식이 형편없으면 굉장히 이미지가 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전컨벤션센터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손님들을 소홀하게 사소한 문제로 회의산업이 굉장히 차질이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문보도에 보면 너무 임대조건이 좋지 않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서로가, 업자와 컨벤션이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적정한 업자를 앞으로 선정해서 운영에 차질없이 해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부료와 케이터링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사실 회의실 세팅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점수계량화해서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3년간 보증금을 4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단 입점한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로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타시·도에서도 동일금액 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예치했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센터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텔업계의 참여가 없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호텔업계에서 참여를 끝까지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포기한 사유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당초에는 웨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회갑연까지 전체 컨벤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의 입점을 민간영역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금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채산성 검토를 해서 최종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습지만 지금 제기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새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호텔업계도 엄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세세한 사항이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호텔업계가 하든 어디가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주어도 하는 사람들의 음식이 부실하거나 음식의 서비스, 질이 나쁘면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다소 채산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좋게 해주면 그게 더 만족스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국장과 컨벤션 관계자들 계신데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대전컨벤션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년으로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10쪽에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이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실제 현장방문을 해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도 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두 번이나 걸쳐서 삭감한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만큼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럴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국장께서 간단하게,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용역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짚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 본예산에 요청드렸다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지난해 관광단지지구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진행을 해나가려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입점시켜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북동 골프장과 연계되는 세리파크텔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요청드리고 있는데 중부권에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셔서 우리 중부권의 명소로 가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사업명세서 202쪽에 보면 축구장조성 도시관리계획 용역 해서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순수한 용역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하려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삼정동과 세천동, 신상동 일원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터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릉지를 터널에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 매워서 공사비도 절감시키고 축구장을 조성해서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시티즌의 연습구장이라든지 춘계·추계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할 때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용역비가 2억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지가 현재 도시철도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지로 되어있는데 삼정동의 경우에는 2만 3,000㎡ 부지가 있는데 15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세천동의 경우에는 2만 6,000㎡가 있는데 10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공사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함으로써 시설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절약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도시철도공사와 ‘너희들 토사가 나오면서 토사 반출해서 버릴 때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 비용을 축구장 조성하는 데 기여해달라’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 2억원에 토지매입비 해서 20~30억원 들어서, 위치의 적정성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잘 기억도 못하겠어요.

동구 삼정동, 세천동, 신상동인데 그 귀퉁이에 축구장 3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남부고속도로 진입로 있지요?

○吳丁燮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전 전체를 큰 틀을 놓고 볼 때 중구, 대덕구, 유성구, 서구를 볼 때 동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면이 4개 면 정도 되는데 축구장의 경우에는 한 쪽에 집중화되는 부분들이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활용도 측면이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고 또 지가의 문제도 여타의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시철도공사의 터널공사와 연계되는 선상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강점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아무리 땅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150만 대전시민의 접근성이 가장 편리하고 이용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축구장을 만들어놔야지, 이게 용역비 2억원에 토지매입비 해서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한 쪽 구석에 몰아놔서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치의 적정성이 맞느냐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말씀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유성지역에는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보조경기장이 위치하고 있고 연구단지에 인조 내지는 천연잔디구장들이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면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중구지역은 사정공원과 한밭종합운동장에 현재 있는 축구면과 보조경기장에 축구장이 입지하고 있고.

○吳丁燮 委員 그렇게 따지시지 말고, 동구에도 축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축구장이 다 있지요.

그런데 신설 축구장을 번두리 외곽지역에 했을 때 대전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하시라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우려의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吳丁燮 委員 우려의 지적이 아니라 지적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이 전체적인 시설의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시는 지적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사업명세서 211쪽, 건국60주년 기념 한국현대사 특별전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입니까, 1억 5,000만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60년사 전시회를 서울에서만 개최합니다.

원래 지방개최 계획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준비해서 해오는데…….

○吳丁燮 委員 아는데, 한국현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60년 동안에 생활모습, 생활사 그리고 각종 생활

용품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吳丁燮 委員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향토사료관과 충대박물관 두 군대를 가지고 검토하는데 현재 작품수량에 따라서 중앙박물관에서 충대박물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정책으로 하는 부분들이 충남 도청자리에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유치와 맞물려서…….

○吳丁燮 委員 그 내용 나와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정도의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올릴 때는 장소는 어디로 하겠다는 정도가 나와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충대박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주관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할, 대전시에 전시를 해주기 때문에 국립민속박물관 쪽이 주관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국립민속박물관이면 민간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서울 전시를 주관하고 국립민속박물관과 충남대박물관, 공동 여기 대전은 주관이 되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은 대전시에서 세워주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吳丁燮 委員 국립민속박물관, 충대박물관도 있으면 그쪽에서 유치해서 해도 되는 행사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대박물관에서 유치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책적인 목적에서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유치와 연계선상에서 하는데…….

○吳丁燮 委員 글썄, 본 위원이 그 뜻은 아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은 대전시가 예산 들어서 하는 전시회가 예를 들어서 충대박물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충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대전시에서 한다면 시립미술관에서 한다면 대전시 1층 어디서 한다면가 해야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데 그 내용물이 우리 1층 전시공간이나 이런 데서 쓰는 부분들이 그 작품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수장관리체계, 방법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아는데 돈을 1억 5,000만원이나 들어서 하는데 충대박물관에다

하면 누가 가겠느냐는 얘기에요, 대전시민이.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주차비 내야되고, 가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부분도 잘…….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라든지…….

○吳丁燮 委員 단순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보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껴맞추기식 행사가 아니냐, 중앙박물관에서 하라니까 그냥 거의 협조형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 유치하느라고 여러 차례 찾아 올라가서 사정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吳丁燮 委員 여러 차례 한 것치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기획한 부서나 기획담당자가 충대박물관에서 자료를 갖다가 전시했을 때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 차 가지고 가서 8월달인가 언제 한다는데 날 뜨거울 때 가서 9월달에 가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시기간이 한 40일 정도 소요되고 여기 오려면 운송, 보험, 홍보, 제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吳丁燮 委員 아주 자그만 행사라고 하더라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물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옛 모습,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모르듯이 과거 몇 십 년 전만 해도 생활풍습도 이런 부분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잊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박물관 유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급 학교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여기에 시립미술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갈등 요인의 핵심이 뭐고 앞으로 지휘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지휘체계를 확립

하는 것이 좋겠는지 주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시립미술관장의 얘기도 참고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지호 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 지휘책임자로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위원들이 가서 현장답사할 때 문제제기를 했던 지휘체계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일관성 있게 시립미술관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시립미술관장으로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오정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미술관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특히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감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차후에 정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은…….

○吳丁燮 委員 개괄적인 내용은 하시지 말고 핵심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10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 산하에 이응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체계에 대해서 우리 미술관 직원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확실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대전시립미술관장이 지지만 외부에 이응노미술관으로서의 어떤 독립된 학예운영은 또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상황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응노미술관의 학예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발휘가 된다면 시립미술관장은 결재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두 미술관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체계가 아닌 두 미술관장의 어떤 사명감이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이응노미술관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맡는 시립미술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점이 오해가 됐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의 문제를 저희는 시립미술관장으로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술관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의원님들을 사적으로 찾아뵈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방문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받고 어떤 한쪽 측면에서의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존에 조직 구성체계를 서로 인식하고 충분히 책임과 권한이 함께 부여됐을 때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이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내용들을 주무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 이응노미술관의 초기에는 이응노관장의 주도 하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관장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관장님의 요청으로 시립미술관 관장에게 예전보다는 더 많은 부분의 책임과 운영의 참여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립미술관장은 시립미술관의 운영뿐만 아니라 이응노미술관의 세부적인 운영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시립미술관장이 이응노미술관의 운영에 너무 참견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상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립미술관장으로서 이응노미술관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李貞姬 委員 지금 조금 전에 이지호 관장이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야될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갈등요인의 문제가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같이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예관장이 이응노미술관 관장하고의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시립미술관장이 운영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명예관장이 시립미술관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응노미술관의 인사권에도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분이 인사권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인사권에 관여하는 부분을 저한테 주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사권에 관여를 안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갈등의 요인이 조직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대로라면.

그렇게 되면 갈등요인 어떠한 요인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지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명예관장이 본 위원은 평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작품기증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너무 명예관장한테 많은 부분을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도 지난 번에도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명예관장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세금으로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응노미술관을 지어줬으면 우리의 의도대로 또 협약에 준해서 작품이 서로 오고가고 또 운영이 되고 이런 문제이지 왜 그분한테 굳이 우리 예산으로 지어지고 우리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그분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의지를 해야 되는가, 왜 끌려다녀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정말 이것은 몇 번 지적하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주무관장으로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끌려다닌다든지 그분에게 한다는 그런 시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또 시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력관계 유지는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에게 끌려간다든지 그분의 의사대로 하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응노미술관의 작품세계라든지 또 작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작품을 교환전시라든지 학술연구라든지 또 작품의 추가 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협조관계에 있을 뿐이지 그런 점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각에서 비춰질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도 그렇게 할 의사도 없고 이응노미술관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측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명품미술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앞으로는 이응노미술관이 대전시가 주체가 돼서 운영되고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시각에서 비쳤던 것은 다시는 그런 시각이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 못한 것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면 국악 야외상설공연 민속예술단 우금치가 하는 상설공연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을 대전시로 왔다가 다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 야외상설공연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 공모신청해서 공모당선이 됐고 금년도에 또 공모당선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을 단체로 직접 지원해주고 시비부담금만 시에서 직접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부분도 단체로 직접 가지 않고 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 민속예술단 우금치는 우리 지역 예술단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연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간이 한 5개월 정도가 되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李貞姬 委員 상설공연도 하고 집중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야외원형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 극장을, 여기는 지금 장소가 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이것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이 지난번에 야외원형극장이 대여료도 100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조례도 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이런 공연을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 예술의전당을 드나들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야외원형극장을 보면 너무 진짜 아쉽거든요,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야외원형극장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원형극장을 지정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원형극장이 활성화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문화공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되니까 거기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金南勛 委員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금치예술단의 이면을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면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전문예술법인으로 국내에 등록된 게 20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애석하게도 한 개밖에 없는데 우금치라는 단체는 전국 200여 개 단체 중에서 10위권 이내에 드는 아주 우수한 공연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무대를 뛰고 있는데 지금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金南勛 委員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대외적으로 풍기는 것은 그런데 이면은 영리단체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활동을 통해서 전문공연수들을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金南勛 委員 생활하고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페이스에 말릴 수도 있고 처음에 우금치가 창단할 당시는 순수했습니다.

아주 산골에서 잘 했는데 요즘에는 상행위를 주로 하는 단체다, 고로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체육시설용역비, 시의원이 어떤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에 축구장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정도 부정도,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에 축구장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金南勛 委員 열악한 실정이 아니라 축구장이 전혀 없잖아요, 학교운동장 외에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민간시설로는 전혀 없고 학교운동장 시설, 두 군데 최근에 하고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金南勛 委員 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소명을 잘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 문제도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삼정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종착역이 거기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勛 委員 그리고 동부순환도로의 IC 부분이고 판암동대로 국도 1호선이 50m 도로입니다.

다만 거리상 외견적으로 멀지 접근론은 그 이상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 소명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金南勛 委員 그런 것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것 안 물어봐도 그만이에요.

위원 판단으로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이지 토론의 근본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이런 문제들은 고령화 사회 가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부분도 있는데 예산요구가 먼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 운영?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관리운영은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던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되고요 지금 아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빗가림 설치하는 부분…….

○金南勛 委員 전천후니까 빗가림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부채납 받으면 공유재산 의회에서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취득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천후 게이트볼장 경기장 관리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金南勛 委員 그래서 이 공유재산 문제를 적절히 넘어가는데 노파심에서 강조 하니까 차질 없기 바라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그리고 전국규모대회를 하나 유치한다 가정을 했을 때 작년에 중고연맹전을 대전에서 한 번 했지요, 중학교연맹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勛 委員 그럼 120개 단체가 오면 선수만 2,000명 이상 3,000명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南勛 委員 유관, 학부모들이 요즘 무지하게 따라다닙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 한 1만여 명 옵니다.

○金南勛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와서 숙박·숙식에 대한 이윤이 대단한 것입니다.

체감으로 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 1인당 하루 얼마다라는 숙식비를 따져서 본다면 대전의 경제유발 효과는 얼마다라는 이런 판단해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을 늘 판단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유치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본 위원도 작년에 대회를 유치하는데 본 위원이 새까만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대전 와서 한번 해라, 그러니까 다 그날도 유성서 시장도 시너지 효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행정이고 시민의 경제활성화에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제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시민은 관심이 없어요.

저것들 나와서 놀다가네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년에도 중고연맹전 유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의 축구 요로에 협조를 해주셔서 유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그렇게 소명도 잘해 주시고요.

소명이 부족해요, 지금 일련의 이웅노미술관도 분명히 국장의 책임입니다, 조직에 문제가 있어요.

이웅노관장께서는 위원들 안 만나고 특정인 위원들 만나서 설명을 해서 그렇다는데 위원들이 자기판단, 자기기준이 있는 것이지 특정인의 얘기 듣고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의정생활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도 굉장히 걸려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국장이 제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죄송합니다.

○金南勛 委員 앞으로 소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책임을 져야돼, 책임을.

더 여러 가지 분분하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식시간도 됐고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몇 년만에 개최가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5년만에 개최가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15년만에, 상당히 오랜만에 개최가 되고 또 작년에는 11등 하

다가 한 13등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최저의 성적을 작년에 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체전에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작년에는 충남에서 개최하면서 1등인가 2등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내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3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3위까지가 입상권 내라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3위 이내 입상권 내에 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금도 정말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상위입상을 하려면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한다든가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체육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한 6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10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줘서 전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번에 전지훈련비라든지 강화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억 80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시다만 운영하면서 최소한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음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금년에 체전에 뛰면 우수선수들은 조건이 좋은 부산이나 서울로 해서 스카우트해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에 KT&G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조달청 또 조폐공사, 수자원 공사, 기업도 많이 있지요, 건설회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종목마다 탁구면 탁구, 펜싱이면 펜싱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 스카우트도 하고 훈련도 거기서 시키고 이런 방안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100대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물밑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각 대표자들 불러서 밥 좀 사고 자꾸만 관심을 써야 이것이 돈도 내놓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깊이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과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담당주무국장 입장에서 체육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실 문화체육국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소방본부, 한밭도서관,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가 힘없는 부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서가 아닌 이런 부서들은 보면 항상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소방본부나 한밭도서관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가시적으로 도표적으로 체감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148억원, 소방본부에만.

소방본부 총예산이 658억원인데 26억원이 삭감됐어요, 총예산에서는.

그 삭감된 예산을 세세히 따져보니까 소방본부 측면에서 기정예산이 148억원, 그래서 3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부소방서 관련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서 총 38억원이 삭감되고 1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6억원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서부소방서 이전 저희들이 증축 대수선비가 35억원을 편성했다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이전시기문제와 맞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사업의 연기로 인해서 삭감된 것은 이해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이번 추경에 실제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약 12억원 됩니다.

○郭泳敎 委員 12억원 신청해서 12억원이 다 반영됐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이지만 항상

소방본부는 예산에 많이 소외되기 때문에 예산취득 관련한 노력을 본부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많이 와서 로비도 하고 하는데 소방본부는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예산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기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보면 소방본부는 주고 싶어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밭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한밭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한밭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이 바르게 쓰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梁承讚 기획관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자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된 338억 6,500만원으로 총기금 예산규모는 4,28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7%인 164억 100만원 증가한 2,043억 8,100만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2,245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내용은 감채적립기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80억원,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9,400만원 등 전입금 100억 9,400만원, 2007년도 개별기금 이월액 일괄조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12억 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34억 4,500만원 등 예탁금상환금 71억 8,900만원,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164억 200만원, 기타 2억원이 증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앙기금보조금 2,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38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 변경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9개 개별기금의 세입 및 세출 금액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4억 100만원, 홍명상가 건축물 및 복개 구조물 취득·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원 등 364억 100만원, 주민지원기금 3,900만원,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설치 10억원 등 운수사업기금 18억 8,1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 500만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35억 9,900만원, 체육진흥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7,500만원, 도시균형발전기금 4,300만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38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된 128억 300만원으로 총자금조성규모는 3,402억 3,400만원이며, 수입은 587억 7,400만원, 지출은 887억 2,400만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0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된 241억 6,200만원이며 총기금 예산규모는 2,6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조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된 41억 9,200만원으로 총자금조성규모는 2,047억 9,200만원이며, 수입은 318억 1,700만원, 지출은 568억 500만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5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 말까지 1,501억 1,7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9억 8,000만원 대비 8.7%인 164억 100만원 증가한 2,043억 8,100만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수입이

164억 100만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홍명상가 건축물 및 복개구조물 취득·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용자 예탁금 200억원이 증액 조정되고 금융기관 예치금 35억 9,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전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勛 委員 기금의 종류가 20개가 조금 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폐합할 의지는 없습니까?

유사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남욱 위원님께서 그간 몇 차례 지적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인식을 같이 해서 2001년도에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해서 27종이었던 것을 21종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당초목적이라든지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관계 이런 조정노력이 있어서 그런 공감대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통합의 효율성을 기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6종을 통합했습니다만 21종도 최대한 가급적 통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현재 기금관리가, 금고가 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농협에 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은 제2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金南勛 委員 특별회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금과는 무관하지만 특별회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대로 당초의 금고인 하나은행에 있습니다.

○金南勛 委員 아직 예치기간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는 기금은 그렇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원래 하나은행에 되어 있고 제2금고는 기금만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김남욱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당초 예치됐던 기금의 만기부분을 말씀하셔서 미예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기 도래시 넘기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농협으로 다 이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金南勛 委員 현재 예치가 주로 1년입니까, 2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金南勛 委員 다르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운용성격에 따라서.

만기도래가 예정되거나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제2금고가 선정될 때부터 준비작업을 해왔고 부득이 이자면에서 거기에 났을 때 손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기도래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했고 손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기관 협의하에 이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南勛 委員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답변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1년짜리를 기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를 몇 퍼센트씩 받으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이율은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시중에 변동하고 있고 기금의 성격, 기금의 예치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은행예치가 평균이자율이 5.5%가 됩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1%가 되어 있어서 기금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성격상 안정적인 금리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金南勛 委員 5.5%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이라든지 기금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金南勛 委員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金南勛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최저 5.8%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제2금융권에서도 요즘에 6.2%까지 줘요, 많이 주는 데는 6.5% 줍니다.

물론 저축은행 같은 데는 7%가 넘지만 리스크가 방대하고 한테 시에서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안정성 면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성격상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거액을 예치하는 법인이라든지 공공예금과 관련해서는 예금금리의 협상에 있어서 일정금리, 일반 개인과는 차별화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하면서 최대이율을,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큰 기관이기도 하고 우리 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방정부예산은 금융기관과 협상해서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퍼센트 줄 것이냐’, ‘몇 퍼센트 주겠다’, ‘우리는 몇 퍼센트 아니면 안 한다’ 이 협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협상이 썩 잘됐다고 보지 않아요.

최저 5.8%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0.3%라도 상향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남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라든지 시점에 따라 평균이자율이 5.5%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추세로 볼 때, 지금 금리상황으로 볼 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상황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5.8%를 베이스로 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협의해봐주세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지금 이게 금고를 결정해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만약 금고가 결정이 안 됐다, 자 우리가 ‘기금 1,000억원을 몇까지 해서 얼마인데 1년 예치하면 얼마 주겠느냐’ 하면 6%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가 금고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지만 돈을 딱 1,000억원 들고 대전시 기금인데 1년 예치하면 얼마 주겠느냐 하면 6%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금고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도 되고 업무운활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와의 예산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를 운영하지만 우리가 지방정부지만 기업형태로 운영한다면 기금의 이자손익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금고를 법적으로 꼭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본 위원이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견해를 밝혀주세요.

금고를 꼭 지정을 해야만,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특히 지방정부의 금고를 복수금고가 됐든 단수금고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했을 때 리베이트, 이자수입은 좀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금고를 운영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가 법적사항인지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죄송합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지정해서 현행법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金南勛 委員 강제규정은 아닐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기구개편 전에 재무국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는,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개정이 언제 됐는지 파악한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강제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남욱 위원님이 알고 계신 후에 개정이 돼서 강제규정이 됐는지 그 여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편의성이나 법적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것이 꼭 금고로 해서 자치단체가 불이익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계좌별, 기금별, 예산별 이것을 모두 가지고 금융권과 상대를 해가면서 모든 계좌를 가지고 협상하고 그때그때마다 금융기관에 불규칙하게 예치하면 재정의 안정성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하나의 금융기관, 두 개의 금융기관을 복수 내지 단수로 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편의성을 포함하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최대한의 금융기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수익이자율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출신 특채를 해서 전문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연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좀더 많은 이익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개인, 법인 같으면 재테크의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보는데 지방정부도 그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시금고를 복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너희들 어디 가겠느냐 어차피 우리한테 오는 것’이라고 해서 금융이자를 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후문도 듣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소위 협상을 할 때 우리 시의 의지를 공고히 하는데 액션을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金南勛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홍명사가 건축물 철거에 200억원 조성됐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여기에 대비한 준비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추경에 일반회계에 반영된 예수금으로 잡힌 것이지요, 여기에서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200억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출한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출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것이 철거에 관련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예산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200억원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준비금으로 전용시키는 거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반회계로 넘겨서 세출예산으로 잡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여기에 협의됐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일단은 법적 내지는 계산하고 있는, 상가측과 협의해야 할 내용의 최소한도를 사업부서에서 판정해서 간 것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295억원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295억원이면 어느 정도 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을 판단해서 금년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신문을 보니까 3,300억원이다, 요구액이 많고 세입자가 수백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중앙테파트와 협의하는 과정보다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다양한 세입자 내지는 입주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상하는데 일종의 갇출 수 있는, 꼭 갇춰야 하는, 그분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예산들을 산출근거를 따져서 사업부서에서 판정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해와 설득,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전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	곽영교	김남욱	조신형
오정섭	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춘용
------	-----

○出席公務員

공보관	윤태희
감사관	손성도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기획관	양승찬
예산담당관	곽이영
자치행정국장	김낙현
자치행정과장	한현택
문화체육국장	정하윤
체육지원과장	윤영병
관광문화재과장	임 목
전국체전기획단장	윤병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용환
시립미술관장	이지호
대전선사박물관장	류용환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송성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강병호
소방본부장	신현철
소방행정과장	김갑순
예방안전과장	정희만
대응구조과장	백병하
공무원교육원교육지원과장	권주남
한밭도서관장	이종철
도서정책부장	오재섭